

지역 매아리

고창군, 농경지 유·무연고 분묘 정비 국토 효율적 이용 도모

고창군은 농경지 등에 설치된 유·무연고 분묘를 정비해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 있다.

군은 매장 묘지 없는 명목 고창 만들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14개 읍면에 대해 평가를 실시했다.

평가 결과 최우수는 흥덕면(1500만원), 우수는 대신면(1000만원), 장려는 아산면과 공음면(500만원×2개소)이 차지하여 1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고창 비전대접의 날' 행사에서 시상이 이뤄졌다.

이번 평가는 2017년 정비대상 유·무연고분묘 조사 상황과 유연고 분묘정비실적, 화장장터금 지원실적, 장사문화 관련 교육 홍보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로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고, 시상은 읍면유·무연고분묘정비사업비를 해결하는데 사용될 계획이다.

한편, 군은 2017년까지 5억49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1,008기의 유·무연고분묘를 정비했다.

올해도 3억5500만원의 예산을 들여 무연분묘 503기를 정비할 계획이다.

또한 유연고 분묘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정비를 유도해 나가고 있으며, 화장장을 이용한 군민에게 화장 장려금 3900만원도 지원했다.

군은 선진장사문화를 만들기 위해 '무장교차면장지 전환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공동선동리 공동묘지 정비사업도 추진하면서 화장 문화 조성과 명품 도시 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고창=김영식기자

부안소방서(서장 강동일) 부안을 신운교차로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차량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소방차 7대가 출동해 신속하게 화재를 진압했다.

지난달 31일 오후 5시 47분경 발생한 교통사고는 교차로에서 봉고차량과 칼로스차량이 추돌하여 발생, 추돌 후 칼로스 차량 보닛에서 시작했다고 확인되었으며, 칼로스 차량 동승자가 119로 신고하였다. 이 화재로 인해 칼로스 차량 엔진룸 부분 공기흡입관이 소실되었고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이날 출동에 나선 임진속 현장차량팀장은 "대다수 교통사고가 교차로에서 발생하고 있다. 교통 신호 준수는 필수적이며, 교차로 통행 시 반드시 시속 40km 이하로 서행하면서 좌우를 살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경찰은 현장 목격자와 영상 저장장치를 활용하여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 중이다.

부안=이욱수기자

쾌적한 마을 만들기 나선다

고창 내죽도 '도서종합개발사업' 국비 4억 확보... 주민 숙원사업 추진

도서개발 촉진법을 근거로 수립한 연차별 '도서종합개발계획'에 따라 고창지역에서 유일하게 사립이 사는 섬인 부안면 봉암리 내죽도에 개발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내죽도는 섬 전체면적이 4만9372㎡이고 27가구, 56명이 거주하고 있다.

그동안 고창군(군수 박우정)에서는 도서종합개발사업으로 2010년 갯벌건 강공원과 전망대 설치, 2011년 부잔교 설치, 2015년 하수도정비사업, 2016년 방파제정비사업, 2017년 마을안길포장공사 등을 추진했다.

올해부터 추진되는 제4차 종합계획

에는 7개 사업에 22억원의 사업비가 내죽도에 투입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마을복지화관 건립 선착장 호안시설 보수 바다 물레길을 정비하는 등 보다 쾌적한 마을 만들기 시에 합을 계획이다.

군은 올해 4억여원의 국비를 확보하여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복지화관 1층을 신축하고 어민들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한 기준방파제를 35m 연장 설치할 계획으로 2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오는 3월부터 착공할 예정이다.

박우정 고창군수는 "섬 주민들이 거주하는 마을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소득증대와 일자리·복지 등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집중적으로 개선하면서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원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서종합개발사업은 도서개발 촉진법에 따라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지난 1988년부터 10년 단위로 1~3차 종합계획에 의해 2017년까지 추진되어 왔으며 제4차 도서종합개발계획이 2018년부터 2027년까지 10년간 추진될 예정이다.

고창=김영식기자

'자활·자립의 꿈에 날개를 달아주다'

정읍산영농조합법인, 모범 자활근로자 10명 선정 송아지 한 마리씩 지원

정읍을 대표하는 사회적이인 산영농조합법인이 자활근로사업 참여 근로자들의 꿈에 날개를 달아주고 있다.

산영은 최근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18명 중 모범근로자 10명을 선정해 1인당 400만원 상당의 송아지(10개월령) 한 마리씩을 지원했다.

방기환 대표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자립의 꿈과 희망을 잃지 않고 자활을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이들의 꿈을 응원하고 싶어 자체 기금으로 송아지를 구입, 지원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산영은 사육시설도 무료로 내주 근로자들은 월 12만원

상당의 사료비만 부담하면 된다. 근로자들은 "사육시설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데 법정근로시간 외 초과근무로 받은 임금으로 사료를 충당할 수 있어 송아지 사육에 따른 부담이 없다"며 "무럭무럭 크는 송아지를 보면서 자활·자립의 꿈을 키워가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13년 정읍에서는 처음으로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 기업으로 선정된 산영은 농산물 생산과 가공사업체이다.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원료로 고퀄타루와 절임배추, 떡 등을 생산 판매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전국 최고의 단풍을 자랑하는 내장산 단풍과 연계한 단풍이 모양의 단풍떡을 개발 판권을 모았다.

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원장 김동수)이 공모한 '2017 고부가가치식품 가공기술개발 지원 사업'에 '오색단풍떡 개발'로 응모 선정되기도 했다.

산영에서는 현재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18명 외에도 자체 채용한 19명 등 37명의 직원들이 방대표를 중심으로 고품질의 제품 생산을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정읍=김대환기자

정읍시통합방위협의회,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 개최 '결의'

정읍시통합방위협의회는 1일 통합방위 협의회를 가졌다.

회의에는 통합방위협의회 위원과 읍면동 통합방위지원본부장, 예비군 지휘관 여성민방위 대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온 겨레가 하나로 단결한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 개최 결의와 함께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토의가 진행됐다.

관련해 김용만 시장권대행자를 비롯한 참석자들은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이 온 겨레와 세계 인류가 화합하는 한바탕 축제, 안전한 축제가 되길 기원하며 응원한다는 등의 4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런 토의에서는 10대 통합방위 실천과제를 선정하고 이를 올림픽 개막 이전까지 실천하기로 했다.

10대 과제는 다음과 같다.

▲지역방위 방호 태세 점검과 경계태세 강화 ▲대 테러 방호 태세 점검과 경계태세 강화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용태세 점검 ▲화재 진압과 인명구조 출동 태세 점검 ▲충전관리 대상 지원 점검 ▲대피소와 비상급수 시설, 경보시설, 민방위 정비, 방독면, 화생방장비 등 민방위 시설·장비 점검 ▲민방공 주민 대피 유도요원 임무 주지 ▲민방위 사태 부상자 응급처치 지원 태세 점검 ▲거동 수상자 주민신고망 점검 ▲전재민 수용시설

과 구조시설 점검이다.

방위협의회 관계자는 "대규모 국제 행사를 앞두고 지역 방호 태세를 확립하고 통합방위 시민 안전시설·장비 점검과 함께 주민대피와 인명구조 태세 점검 등을 통해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협의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기자

'그림책 읽기가 너무 재미있어요'

정읍기적의도서관 '그림책이랑 놀자' 성료

정읍기적의도서관이 겨울방학 특별프로그램으로 운영한 '그림책이랑 놀자'가 성황리에 마무리 됐다.

지난달 29일부터 31일까지 기적의 도서관 강당에서 진행된 프로그램은 7세부터 9세까지 63명의 어린이들이 참여했다.

어린이들은 동화구연 강사와 함께 '김수환무 거북이와 두루미 삼천갑자 동방삭(소중애 글/이승현 그림/비룡소 출판)' 등을 함께 읽었다. 또 탕탕볼을 이용한 친구 이름 알기 놀이와 책보 놀이, 바디존거 꾸미기 등 다양한 독후 활동에도 참여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특히 지난해 기적의도서관에서 동화구연지도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자원봉사자들로 진행돼 의미를 더했다. 이들 봉사자들은 "자격증 취득한



후 아이들을 지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돼 더욱 기쁘고 실력도 향상시키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기적의 도서관은 북스타트와 한 권의 책 독서운동, 견학 프로그램, 역사 바로 알기, 생활과학 생각과학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앞으로 진행될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는 기적의 도서관(☎063.639-6452~3)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읍=김대환기자

정읍시보건소, '건강여성 클리닉 사업' 지속 추진

정읍시보건소가 올해도 '건강여성 찾깍을 클리닉 사업'(이하 여성클리닉)을 지속적으로 시행한다.

여성클리닉사업은 사춘기에 접어든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6개월 간격으로 2회에 걸쳐 의사와 1:1 건강 상담과 함께 무료로 자궁경부암 예방 접종을 하는 사업이다.

올해 대상자는 2005.1.1.~2006.12.31.에 출생한 여성청소년이다. 접종 대상자 중 2005년생(중학교학년)의 경우 올해 12월 말까지 1차 접종을 마쳐야 내년도 2차 접종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접종은 보건소나 정읍지역 내 18개 의료기관에서 가능하며, 주소지에 관계없이 어느 지역에서나 주소지에 이용할 수 있다.

여성클리닉 사업 참여 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https://nip.cdc.go.kr)나 정읍시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자궁경부암은 임신이나 출산에 미치는 영향이 커 연령에 따른 정기 예방접종을 통해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기자

고창군, '내재해형 규격하우스 설치사업' 설명회

고창군(군수 박우정)이 지난달 31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스마트팜 내재해형 규격하우스 설치사업 사전설명회'를 개최했다.

"한국의 분할 더들어 살자는 희망찬 농업 고창"을 만들기 위해 열린 이날 설명회에는 원활한 사업 추진과 신속집행을 위해 올해 사업대상지역 읍면 담당공무원 등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설명회는 보조사업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 보조금 부정수급과 부실 시공을 사전에 예방하고 보조사업자와 시공업체의 자격요건을 강화해 투명하고 원활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보조사업 원래의 목적을 극대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추진하는 내재해형 규격하우스 설치사업은 고추비닐 재배시설 115동, 스마트팜 지역특화품목육성 비닐하우스 340동, 군 자체 소형비닐하우스 120동과 시설하우스 내 시설현대화 사업과 농업에너지 절감시설 등으로 지역 농업인의 실질적인 소득증대와 직결되는 사업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기상재해에 대비한 안전한 농산물 생산으로 농가소득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기자

Mulberry Wine
You can now enjoy the wild ginseng that you dreamed of! Gangsanmyeongju's Mulberry Wine.

청와대 만찬주! 부안강산뽕주를 선택했습니다.

부안강산뽕주 GIFT SET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부안강산뽕주와 함께 오디주의 '찰'맛을 느껴보세요.

오천년 민족의 격조높은 기품을 오디 넉넉히 넣고 정성스레 빚어내어 부드럽고 오묘한 맛에 뒤끝이 결핍함을 한병 술로 빚었습니다. 부안의 변산반도 청정해역의 해풍을 맞으며 열매가 익어 타 지역보다 당도와 짙이 아주 탁월합니다. 이 질 좋은 오디만을 선별하여 직접 생산 농가로부터 대량 구매하여 군민 소득 증대 사업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GIFT SET 1세 | 750ml 2ea, 잔 2ea/16% |
GIFT SET 2세 | 750ml 2ea, 잔 1ea, 오프너/12% |
GIFT SET 4세 | 500ml 2ea, 잔 2ea/12% |
GIFT SET 5세 | 375ml 5ea/13% |
GIFT SET 6세 | 500ml 참뽕2ea/12%, 복분자1ea/13%, 잔 1ea, 오프너 |
GIFT SET 일반 | 375ml 2ea/13% |

부안강산뽕주 Premium Ohdi Wine

TEL : 063-584-9960
www.gangsanwine.com